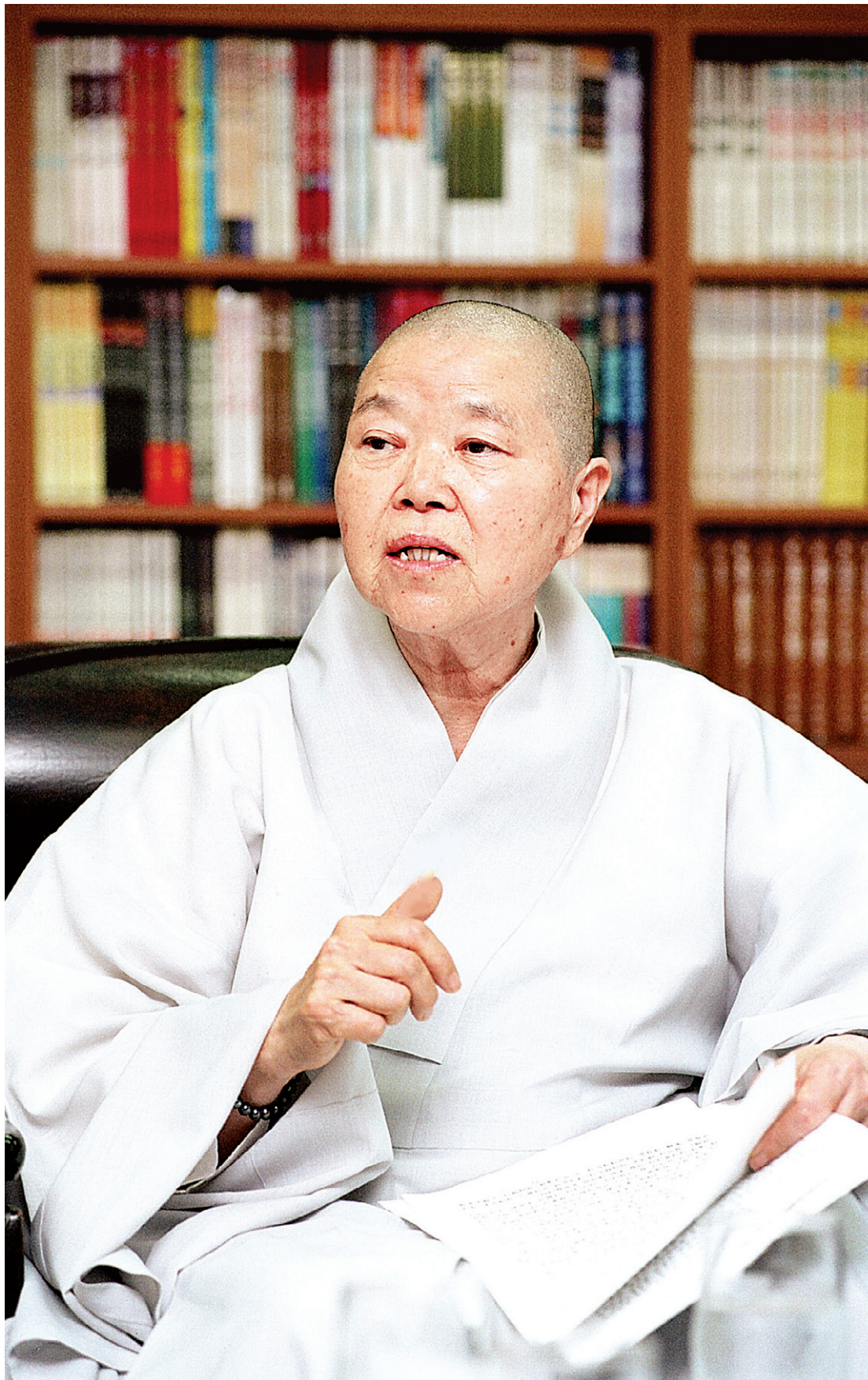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0>

비구니 교육 강단 50여년

비구니 교육의 역사 명성 스님 운문승가대학원장



법계명성(法界明星)스님은 ... 1931년 경북 상주 출생, 1952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8년 선암사에서 성능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선암사 강원 강사 3년, 서울 청룡사 강원 강사로 10여 년간 후학을 지도하였다. 1970년 운문사 승가학원 강사로 취임, 1977년부터는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1,700여 명이 넘는 졸업생과 1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는 등 비구니 교육에 헌신하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3, 4, 5, 8, 9대) 역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비구니 최고 품계인 명사 법계를 품수 받았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8, 9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운문승가대학원장, 운문사 회주로 운문사 죽림원에서 주석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가을 단풍이 볼꽃보다 아름답다더니, 만추의 운문사는 황홀 그 자체다. 운문사로 향하는 기나긴 차랑행렬, 불속 불덩이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한없이 뿌듯하기만 하다. 수많은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이 나와 비슷하리라는 생각 덕분에.

운문사에 들면 도량이 설법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비뚤어진 데도 없고 모난 데도 없이 정갈하고 편안한 도량. 비구니스님들의 맑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난 삶을 성찰하게 된다. 명성 스님이 계셔서 더욱 푸근한 고향 같은 도량이다. 명성 스님은 전통과 현대 학문을 섭렵한 대강백으로 한국 비구니교육사의 역사요, 산증인으로 불린다. 40년 넘게 운문사에 주석하면서 운문사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도량, 아니 세계 제일의 비구니 도량으로 일구고, 운문승가대학에서 1,700여 제자들을 길러낸 명성 스님 덕분에 오늘의 운문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량의 나무 한 그루, 들꽃 한 송이에도 스님의 정성이 깃들여 있는 듯해 감동 받는 운문사 죽림원에서 스님을 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큰 힘, 원력

동국대 교수 임용 제의를 뿌리치고, 1970년 운문 강원 강주로 운문사에 오신 명성 스님. 학인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던 스님은 1977년부터 1998년까지 20년 3개월 동안 운문승가대학 학장과 운문사 주지소임을 겸임하면서 정말 많은 불사를 하셨다. 스님은 10여 동에 불교한데다 말할 수 없이 쇠락했던 운문사를 40여 동의 전각이 자리한 대가람으로 환골탈태시키고, 250여 대중에 수학을 하는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다.

“나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눈썹 역할 밖에 한 게 없어요. 다 삼직스님들, 사부대중이 한 것이고 부처님 가피로 이루어진 것이예요.”

스님을 일러 신라시대의 선화자 비구니 이후에 처음 나온, 5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스님이라 다들 칭송하는데, 정작 당신은 그 공덕을 모두 다 사부대중에게 회향한다. 스님의 눈썹 이야기가 마치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으면서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이야기와 겹쳐진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지요. 그 중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원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면 뜻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운문사와 사리암의 불가사의한 건축 불사, 그보다 더 찬란한 운문승가대학 교육불사와 장학불사, 8대와 9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한국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사카디타 대회 유치와 국제세미나 등 수없이 다양한 불사를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이 서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통사람들은 크든 작든 대부분 욕심으로 살아 간다면 불보살님들은 서원으로 살아갑니다.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대원, 여래십대발원, 사후서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 스님은 불보살님들처럼 초발심시절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을 한결 같이 서원으로 살아오셨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수기도와 관음기도를 하면서 스님은 일구월심 여래십대발원문을 체득했다. 특히 과거 무량겁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알게 모르게 익혀온 죄업을 멀하여 학인들 모두 장애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인들이 서원의 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원하고 또 서원하고 있다. “원을 세우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썩이 트듯이 원을 세우면 그대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있다 해도 치지 않으면 종소리가 안 나듯이, 원을 세우는 것은 종을 치는 것과 같아서 크게 종을 치면 종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와 같이 원을 철저히 세우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증상은 판전을 피운다. “서원을 세운다고 해서 스님처럼 다 이루실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특별한 비결을 자꾸 여쭙었다. 스님은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철저히 원을 세우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단박 역설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는 바가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님이 뜻하는 일마다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서원의 힘, 원력과 기도

“한국불교 발전 위해서 교육 필요”

운문사를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길러낸 후학들 일선서 맹활약

원을 철저히 세우면 반드시 성취

문수·관음기도, 사경, 참선 등 일과

에 있었다. 스님의 삶 자체가 서원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많은 불사를 원만 성취하고, 운문사의 사부대중이 각자 모양새대로 아무런 장애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처럼 되어 지이다”

“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관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원력을 두루 갖추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내세워 내치라는 사람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안아 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또 매사에 문수보살의 지혜를 쓰시고, 일을 추진하실 때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하시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시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주시는 인내심, 인욕행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상좌스님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스님을 뵈면 전생부터 닦아온 수행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일찍이 스님이 법기임을 간파하신 관음 큰스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덕분인가? 아니면 전생연인이 혼잡되어서인가?

스님은 어릴 때부터 <성현전>을 많이 읽으면서 “성현처럼 부처님처럼 되어 지이다” 하고 서원을 세웠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하며 살아왔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도 속상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남다른 체험도 전생부터 이어진 출가 인연을 예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

“관음 스님께서 <생명의 실상>을 여러 번 읽고 고 하셨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개울가에서 책을 읽다가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징그럽다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컸다. ‘축생의 몸을 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뱀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신이하게도 그 자리에서 뱀이 굳어갔다. 그때 우연의 일치로 죽었는지, 뱀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기원한 공덕으로 몸을 바꾸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일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해인사 국일암(선원)의 선행(善行)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했다. 행자시절 공양주 소임을 살면서 치문과 초발심자경문을 뒀고, 일구월심 공부길이 열리기를 발원했다. 6·25전쟁 중이었는데도 총성과 포격소리가 산중을 흔들어도 두렵지 않았다. 불보살님을 의지하며 공부에 장애 없기만을 서원하였다. 뜻대로 공부길이 열렸다. 스님은 당대의 대강백이셨던 관음 스님(사집), 경봉 스님(동학사, 원각경), 운허 스님(능엄경), 만우 스님, 탄허 스님, 성능 스님(선암사)을 모시고 경전 공부에 매진하였다. 마침내 성능 스님 회상에서 대교를 마쳤다.

“어느 날 노장님께서 좌복을 쓰옥 밀어주시면서 전강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출가한 지 5년 만에 과거적으로 전강을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비구니 스님에게 전강을 주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님은 스물여덟의 나이에 조계사 법당에서 스님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였다. 그해 마침 중회를 마치시고 동산 스님, 청담 스님, 일타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어른스님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다. 명성 스님은 어른 스님들이 앉아서서 오려 더 힘이 되고 든든해서 여법하게 법화경의 회통법문을 할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그 일,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찌 이생만의 일이겠는가? 출가도 공부도 불사도 다 다 겁쟁의 인연의 소지일 것이다.

학인들이 모두 인천의 스승되길

“강원에서 경전을 가르치면서 내전과 외전을 다 겸해야만 한다는 생각, 이 시대사조에 부응해서 현대인들을 이해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주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갔지요.”

선암사 강원에서 좌박 3년간 강의를 하면서 스님은 종단 교육의 현실을 절감하였다. 서울에 올라와 청룡사 강원에서 10년간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동국대학교에서 학문연찬에 힘썼다(스님은 불교학에서도 어려운 유석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당시 김동화 박사님이 “시골에서 하는 공부는 서울에서 낯잡 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까지 동국대학교 강단에 남아주시기를 원했는데 운문사로 내려왔다. 그리고 평생을 비구니 후학 양성에 바쳤다. 이는 스님의 남다른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래의 양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비구 스님들과 비구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정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티벳 만다라 그림

(크기별 3종류)



\* 티벳 스님들이 직접 그린 만다라



16나한상 (높이 30cm)



원목 부처님 좌대 (2자 반 기준)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풀어놓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촬영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 “학인들 ‘시대의 스승’ 되길...”



2004년 6월 28일 열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참가자들이 당시 대회장이었던 명성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운문사를 참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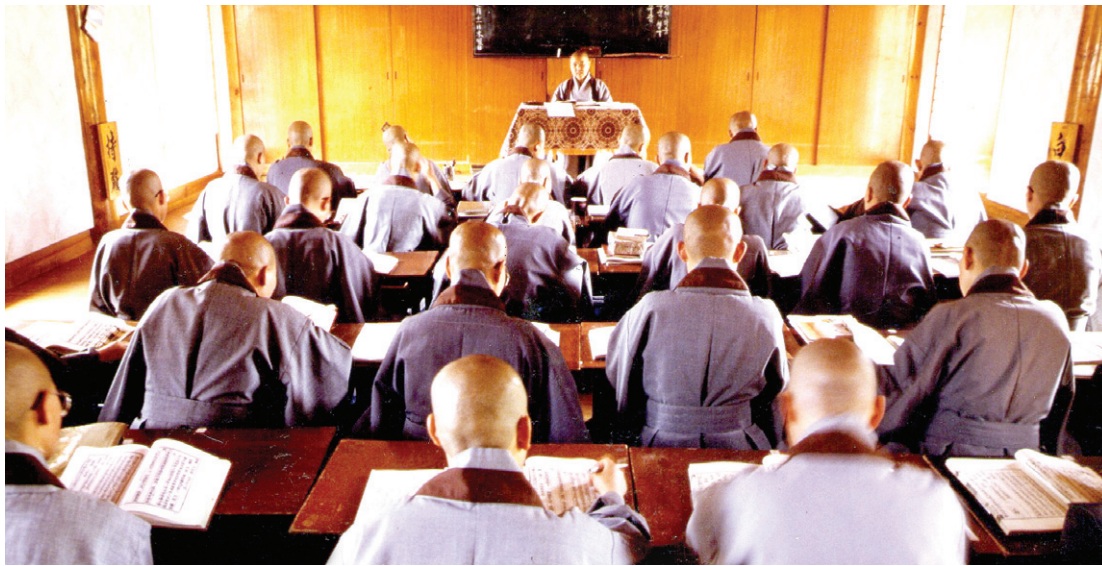
니 스님들이 힘을 합쳐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일찍이 비구니 스님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때 스님을 따르던 청룡사 학인들까지 운문사로 따라나래 왔다. 스님이 운문사에서 강을 하니 전국에서 학인들이 몰려들었다. 학인들이 공부할 장소가 모자라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대가람 운문사가 된 단초였다.

스님은 운문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개편했다. 당신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학인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심지어 강원에 들어오기 전 기초학문이 부족한 스님들에게는 따로 국어, 수학, 영어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외국어 교육을 시켜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전공교수님들을 초빙, 특강을 통해 사회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운문승가대학이 전인적 인격완성과 불법교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과정과 특별활동 프로그램·교육시설·도서관·시각각교육실·컴퓨터실 등 최고의 환경을 갖춘 교육전당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비구니 강원 최초로 승가대학원과 율원을 개설한 것도 다 스님의 “비구니스님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책임과 지도력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불교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력에서 왔다.

스님은 지금도 “학인들이 장애 없이 공부해 인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지이다”라는 서원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스님의 간절한 서원과 기도 덕분에 운문승가대학을 나오신 스님들의 활약상이 대단하다. 운문사관학교라 칭하는 운문 출신 스님들은 활발한 기개로 오늘날 포교현장, 선방, 강원, 대학강단 등에서 한국불교발전의 주춧돌을 놓고 있다.

“개개인의 몫을 원만하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신 명성 학장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는 찬사를 드리는 운문승가대학 졸업생 스님들, 요즘과 같은 스승 부재의 시절에 스승에 대한 스님들의 고마움과 그리움이 참으로 부럽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학인들을 가르치는 모습. 명성 스님의 운문사 승가대학은 전통강원 교육 이외에도 외국어, 원력이 담긴 인문학 등 학인들이 시대의 스승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 있다.

## 내생에도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예전에 김우중 씨가 쓴 책 제목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는데, 이 나이 되고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짧네요.”

세수 83세, 스님은 나이를 잊고 살았다. 1998년 뒤늦은 박사학위를 받는 날, 30년을 소급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스님은 늘 청년의 열정으로 사셨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던가. 일상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었다. 스님의 올곧은 신심, 기도와 원력으로 사는 삶, 최선을 다해 매사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후학의 귀감이 됐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운문의 가풍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스님께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는 말을 들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진하라는 자비로운 경책으로 들렸다.

“중국어 갔을 때 낙산의 부처님을 참례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 발에 몇 사람이 설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처님이셨어요. 낙산이 매우 가파라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그때 미륵불을 염하면서 ‘미래세 미륵부처님의 회상에도 태어나 출가 수행

해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웠지요.” 후학들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한 스님은 요즘 새롭게 출간한 듯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문수기도와 관음기도, 만불 사경, 참선 수행, 독서, 포행을 하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법문도 해주면서 평생동안 세웠던 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내생에도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원력으로 수행으로 살아가는 명성 스님, “원은 종자와 같이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는 것처럼 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누구든지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든다.

가을햇살을 받은 운문사가 빛난다. 스님이 있어 더욱 중대한 운문사다. 스님께서 선물로 주신 합장주를 돌린다. “스님, 스님처럼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우고 나의 수행을 다잡는다.

사기순(불교시대사 기획편집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잉겔불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다를 바 없다. 자리에 서 일어나면 세수하여 몸을 정하게 하고 마음도 가다듬는다. 아침에 허둥대는 일이란 별반 없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될 일이나까. 젊어서는 해인사 관음전을 쓸 때 도량석 목탁이 내리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다가 대적광전에 제일 먼저 오르기도 했다.

기운이 내려가면 자연히 불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다. 예전엔 부싯돌이 있었다. 부싯돌 만으로 불을 만들 수 없으므로 부싯돌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시를 치는 데 불뚱이 박혀서 불이 붙는 물건이다. 그 재료로는 썩 잎이나 수리취 따위를 볶아서 비벼 만들었다. 성냥을 그어대듯이 전방으로 힘껏 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불이 붙게 된다. 그러면 공방대를 입에 문 할아버지들은 불을 붙여 뻘뻘거리며 빨아 불길을 살려낸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바라 뿐이다.

속이야 건국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편오래 전부터 유용하게 쓰였던 먹거리이기도 하다. 수리취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이다. 산이나 들에 나는데 줄기의 높이는 1미터 가량이고 줄기에서 나온 길동근 잎은 뒷면에 흰 털이 난다. 구시월이 되면 자색이나 백색 꽃이 가지 꼭대기에 핀다. 어린잎은 먹거리로 쓰이기도 한다. 개 구(狗)자, 허 설(舌)자를 써 구설초라 부르기도 하는 풀이다.

성냥이 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부싯돌 불이는 재간이 없지만 성냥불 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이마저도 요즘 젊은이들은 겁이 나는 모양이다. 성냥통을 드는 폼세부터 어설피 보이나.

요사이 법당에서 촛불 공양을 올릴 때 성냥보다 많이 쓰이는 것이 있다. 주둥이가 길게 나온 가스 라이터를 쓴다. 정성이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점화 할 때 탁탁 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거슬리기도 하여 쓰지 않는다.

원통형 성냥갑에 마치 콩나물 시루 테를 갖춰 빼곡이 올라온 콩나물마냥 머리를 마주하고 있는 붉은 성냥을 뽑아 쓰고 있다. 불뚱은 성냥 한 개비로 양 쪽 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 사들이 나기도 한다.

불꽃이 닿아 엄지손가락 끝이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한 지점이 생기 없는 창백한 얼굴마냥 흰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따끔거리는 화기를 가시려고 찬물에 씻어 내기도 해본다. 그 뿐이라. 깜부기불이 될 때까지 쓰다가 겪는 아쉬움도 있다. 바닥에 성냥 머리쪽이 떨어져 금세 주우려 들면 엄지와 집자에 덩석 붙는다. 사그라들도록 바닥에 굴러보기도 한다. 이런 일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니 바닥은 어느새 검은 점박이가 제법 늘어났다.

근검의 표상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우치함의 징표쯤으로 여겨야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근검도 어린 시절에 습득한 결과라 아닐

까 한다. 저 깜부기불을 보아라. 성냥 머리 쪽에 몇 초 살았다가 죽어가면서도 흔적을 남기다니. 순간에서 영원을 노래하고 있구나. 깜부기불은 제 흥에 겨워 사는 것만 같다. 그러니까 독락(獨樂)인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하건 자기 소관이 아니니. 누가 뭐라 하건 알 바 아니라는 것쯤은 체득되어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여럿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상생시켜주는 잉겔불은 아름답다. 이글이글 핀 숲 불을 잉겔불이라 하기도 하고 불잉겔이라고도 한다. 잉겔불 하면 사람마다 연상되는 생각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광주 5.18을 ‘잉겔불’로 노래한 오대교 시인이 있다.

## 이것 좀 봐

아직도 덜 핫나 봐  
흰머리를 날리며 별경계 달아 오른 게

인간은 무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해 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나 한 개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시 모르고 있으니. 활짝 핀 숲불이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 서로를 상생시켜주는 ‘잉겔불’

함께 즐거워 하는 삶 살아야

여 홀로 빛과 열량을 뿜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일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씀없는 외침이 잔잔한 파도가 되어 내면세계에 밀려온다. 그 거역할 수 없는 외침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까지 할 것이다.

성인들은 강조하는 말이 있다. 습관이 무섭다고. 본성이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습관에 따라 차츰차츰 멀어진다(性相近 習相遠)고 하였다. 훈습 또한 그렇다. 향을 쐬 풍이에서는 향내가 가지지 않고, 생선을 썬 종이는 비린내가 가지지 않더라는 가르침은 훈습의 중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종이와 재질이 똑 같지만 어느 용도로 쓰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삶도 매 한가지가 아니겠는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닐까 한다. 남의 입김이나 오르내리는 사람을 누구인들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겠는가. 좋은 친구란 불변하는 친구여야 한다. 유행도 타지 않아야 한다. 시류에 영합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악스런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나는 금세 대답할 수 있다. 양서라고.

오늘도 옛 벗의 체운을 느끼며 책상을 마주 한다.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제품의 가치**

수저 선물은 주고 받는 분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선물입니다!

- 사찰에는 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 공양실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인데 대부분 모양도 제 각각으로 공양 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는 만들 때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오래 사용하면 굽히고 달아 보기도 싫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자주 교체한다. 다라니수저는 기존 수저를 대폭 보완, 인체 친화형 디자인으로 잡았을 때 손이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전 공정을 국내 제작하여 재질도 최고급 스텐 27종을 사용 명품 수저로 만들었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단청문양”과 “옴”자를 넣었다.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본인 부담),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 있다. 다라니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가정에는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동명 301-0115-8112-91 이용주

**고영산업**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원성취 인등 및 시리함

크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비품 전선 10년**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동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LED용) LED전구, DC 3V 백색·노랑·빨강

▶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